해동문화예술촌 Hae Dong Art & Culture Platform

11월 3일까지 두번째 기획전… '꿈' 주제 작가 6명 회화·섬유·판화·조각·공예 등 전시

이곳에선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된다 계~속

'공간도 구경하고, 전시회도 관람하고.'

오래된 막걸리 주조장을 개조한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은 공간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세월의 흐름이 그대로 느껴지는 건물은 멋진 갤러리로 변신했고, 건물 벽면을 메운 재미있는 그림들 앞에선 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된다. 1960년대부터 막걸리를 빚는 데 사용했던 우물도 구경하고, 막걸리 만드는 과정과 전국의 막걸리들을 전시해 놓은 아카이브 공간도 눈길을 끈다.

주조장에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해동문화예술촌은 상도 여러 차례 받았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았고 2019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최우수상, 2019 매니페스토 지역문화부문 ' 우수상도 수상했다.

지난 8월말까지 개관전 '도시 리듬' 전을 통해 다양한 미술 세계를 펼쳐보였던 해동문화예술촌이 오는 11월 3일까지 두번째 전시회를 개최중이다. 양초롱 예술감독은 이번 기획전의 주제를 '꿈'으로 정하고 회화, 섬유, 판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6명을 초대했다. 참여 작가는 윤준영·조양희(회화), 이미자(섬유), 정승원(판화), 조광석(조각), 채지윤(공예) 등 6명으로, 이들 작가의 시선으로 본 꿈과 현실의 관계가 작품으로 펼쳐진다.

정승원 작가는 갤러리 입구 로비 천정에 설치 작품을 전시중이며 이미자 작가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의 추억을 한땀 한땀 바느질로 묘사했다. 또 조양희 작가는 면양정, 식영정 등 담양 지역의 다양한 정자를 한국화로 표현해 냈으며 조광석 작가는 바벨탑에 다다르려는 인간의 꿈을 나무로 작업했다. 회화 작업을 하는 윤준영 작가는 이번에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의 회화 작품

오래된 주조장 개조 갤러리로 변신… '2019공간문화대상' 우수상 등 수상

속에 등장하곤 하는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전시장에 서 있고 벽에는 다양한 크기의 낡은 나무 창문을 붙여 색다른 느낌을 준다.

그밖에 나전칠기 작업을 진행하는 채지윤 작가는 '사과'를 소재로 작업했다. 나전칠기로 작업한 나뭇가지 모양의 다리가 달린 의자와 버려진 자개 거울을 재해석한 작품도 흥미롭다.

10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성혜림·이인성 작가 부부의 어린이 예술 특별전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 예술 특별전 '꿈꾸는…' 전이 열리는 '상상나래' 공간에 들어서면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행복해진다. 서양화가 이인성·성혜림 부부 작가가 기획한 이 전시실은 동심이 흐르는 공간이다.

성혜림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녀의 모습도 보이고 커튼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얀 방'도 만들어 두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와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이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듯, 벽화 속 인물들은 책장문을 열고, 하늘까지 놓인 사다리를 타고 환상의 여행을 떠난다. 또 아이들이 직접 그린 초록 그림들도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어 또 다른 느낌을 전한다.

이 공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열리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관람객들이 직접 꾸밀 수 있다. 이인성 작가의 '그린 그린'은 참가자들이 노랑과 파랑을 섞은 후 자기만의 '초록색'을 만들어가는 기획이며 성혜림의 '꿈꾸는 방'은 자신만의 창문(액자·틀)을 그린 후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꿈, 꿈꾸는 것)를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원하는 곳에 붙이면 된다.

한편 해동문화예술촌은 현재도 공간을 다듬고 있다. 주인들이 살던 한옥은 개보수를 거쳐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당초 건물을 개보수 해 카페 등으로 활용하려 했던 건물은 철거한 후 푸른 잔디밭으로 남겨 두었다. 또 문화촌 바로 앞 한옥은 인문학당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매월 둘째주·넷째주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 해동문화예술촌 상상나래에서 열리는 '꿈꾸는…' 모습.
2 '꿈'을 주제로 열리는 기획전에 참가한 채지윤 작가의 작품.

'월곡동 산 2번지'에 무슨일이

'창작그룹 가족' 5일 서구문화센터서 두차례 공연

연극 '월곡동 산 2번지'가 5일 오후 3시, 7시 두 차례에 걸쳐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공연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시서구문화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창작그룹 가족'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사진〉 이번 작품은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 동물원'을 각색한 극으로, 원작의 구성을 따르되 1982년 당시 우리나라 인물들의 이야기로 꾸며진다. '거창국제연극제' 단체 은상, 여자연기대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연극제' 신인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1982년 서울 월곡동 산동네의 허름한 식당 '연이네'를 운영하는 어머니. 그의 유일한 희망은 신체적 결함 때문에 소극적이고 열등감에 빠져 라디오와 자기 세계에 빠진 딸 연이에게 적당한 남편감을 찾아 주는 것이다. 아들 광석은 누나에게 멋진 청년을 소개시켜 주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동창들과의 만남 중 우연히 태진을 만나게 된다. 어머니는 연이와 태진을 이어주려 하고, 둘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는데….

창작그룹 가족은 지난 2006년 대학로 연극인들이 '새로운 예술'을 목표로 동인제 극단으로 창단한 단체로, 소극장 연극과 정통 연극을 무대에 올리며 순수무대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셰익스피어 in 햄릿', '지구를 먹는 아이', '삶' 등 작품을 창작해 무대에 올렸다. 이날 공연은 윤돈선이 작·연출을 맡았으며 장설하·염기윤·유병선 등 8명의 배우가 출연한다. 관람료 어린이 2000원, 일반 3000원(자유석). /유연재 기자 yjyou@

'한국의 산하' 박문수 초대전, 20일까지 금봉미술관

'세량지'

아름다운 우리 산하를 찾아 그 곳에서 발견한 장대한 풍경을 화폭에 담은 전시회가 마련됐다,

금봉미술관(한상운 관장)이 10월 기획 전시로 송산(松山) 박문수 작가 초대전을 기획했다.

오는 20일까지 '한국의 산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금강산, 설악산, 무등산 등 화필을 들고 이 땅의 산과 강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만난 생생한 풍광과 느낌을 담은 작품을 파노라마 형태의 대작으로 펼쳐보인다.

수묵 담채와 채색화로 표현해낸 이번 작품들은 물, 계곡, 나무, 바위 등 강과 산의 다양한 표정들을 섬세한 붓의 움직임으로 표현해 대자연 산수의 웅장한 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기암괴석의 웅장한 모습을 표현한 '금강산 천주봉'의 자태는 압도감을 전하며 가을단풍의 아름다운 모습이 인상적인 '만물상 천선대', 눈내린 무등산의 풍경을 아스라이 잡아낸 '무등산 초설' 등이 눈길을 끈다. 또 봄이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안개와 벚꽃, 막 잎을 내기 시작한 나무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화순 세량지 풍경도 만날 수 있다.

박 작가는 조선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광주시 미술대전, 한국화 특장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선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묵회, 수묵회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조선대 김희정 교수, '프랑스 여자' 롯데크리에이티브공모 독립영화 대상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희정〈사진〉 교수의 독립영화 '프랑스 여자'가 '제8회 롯데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에서 독립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롯데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은 재능 있는 시나리오 작가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엿보이는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이번에는 570편의 시나리오와 22편이 출품됐다.

대상을 수상한 '프랑스 여자'는 20여년의 타지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미라가 우연히 19년전 과거로 되돌아가며 겪은 여행기다. 2015년과 1997년 시간을 교차하며 아픈 과거와 대면하는 미라를 보여주고 '죽음의 뒤에 무엇이 있는가?' 등 질문을 던진다.

김 교수는 2007년 영화 '열세살 수아'로 데뷔해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부문, 서울국제영화제 국내경쟁부문 퍼스트컷 신인감독상 등을 수상했으며, 이번 작품은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서 초청 상영됐다.

한편 시상식은 제24회 부산영화제 기간인 5일 부산에서 열리며, 독립영화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여만원의 상금도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일 5·18 교육관서 시낭송대회

전국 5·18시낭송대회가 5일 5·18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열린다.

5·18 민주화운동교육관(관장 황일봉)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함양하고 통일을 염원했던 서은 문병란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국 5·18시낭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일 치러지는 본선은 전국에서 지원한 시민 130여명 중 예심을 거쳐 선정된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작품선택과 이해, 내용의 정확성(암기, 시어전달), 낭송표현력(발성, 감정, 태도, 스킬), 시간활용 및 청중반응 등이다.

한편 이번 1부, 2부에 걸쳐 시낭송 경연이 진행된 후에는 제1회 대상 수상자 임경화 낭송가의 시낭송 공연이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7일부터 광주시민인문학강좌

광주시민인문학이 오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72기 정기강좌를 개최한다.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수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인문학, 글쓰기, 페미니즘,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강좌가 진행된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명혜영 교수가 각각 '글로컬 인문학-호남의 문학-마지널 공간으로서의 한강소설', '글쓰기 교실-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에는 페미니즘 입문 시간으로 명혜영 교수가 '한국사회, 여성, 젠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금요일(11일)에는 박성천 박사의 '호남의 일상을 찾아서-박기자의 취재 수첩'이 이어진다.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영화 덕후' 시간으로 진정한 씨가 '여성으로 읽는 삶, 여성, 가족, 개인'을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수별, 강좌별로 등록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X 핀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